

RIS 사업 추진 제도 확산 '시동'

전북대, 도내 10개 참여 대학 관계자 등 대상 전북새만금택 공유대학(원) 설명회 발전된 전북으로 변모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지역 정주 혁신인재 양성 등 제시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 RIS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간 정부와 전북 지자체 대응투자 등을 합해 총 2149억 원이 투입되는 RIS 사업의 주관대학으로서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중심 대학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대학 내에 RIS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송규정)를 설치했다.

전북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북새만금택(JST) 공유대학(원)'을 신설해 융합실무인재, 고급연구인재, 현장전문인재, 사회창의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난 12일 전북대 공대 9호관 시청각실에서 10개 참여 대학의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수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전북새만금택(JST) 공유대학(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송규정 본부장은 현재의 낙후된 전북지역이 미래의 발



지난 12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9호관 시청각실에서 10개 참여 대학의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수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전북새만금택(JST) 공유대학(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전된 전북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학신, 지역에 정주하는 혁신인재 양성, 개방형 교육시스템 JST 공유대학 추진 함께 공유하고 전진하는 전북 미래 개척

등을 제시했다. 또한 JST 공유대학(원) 규정이 설정된 '전북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 추진의 제도적 근간으로 조직, 학사운영 및

교육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JST 공유대학(원)은 내년 1학기부터 전북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해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및 농생명·바이오 등 3개 핵심 분야별 학부, 미래모빌리티융복합대학원, 에너지대학원 및 농생명·바이오대학원 등을 신설해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중 미래수송기기학부는 전북대, 에너지신산업학부는 군산대, 농생명·바이오학부는 원광대가 각각 주관을 맡아 각 학부당 3개의 전공(학과, 각 30명 산발)을 설치해 모두 270명의 분야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 실험실습 등이 가능한 새만금 공동캠퍼스 및 지역혁신기과의 협업 교육, 현장실습 등이 가능한 새만금 오픈 캠퍼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규정 본부장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JST 공유대학(원) 추진을 위한 제도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며 "JST 공유대학(원)이 지역 현장에서 원하는 창의·융합·실무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플래그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혁신융합캠퍼스 공모 선정

전주기전대, 전북 혁신도시에 제2캠퍼스 구축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총 32억 지원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 전북혁신도시에 제2 캠퍼스를 구축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본보 10월 13일자1면> 혁신융합캠퍼스에서는 치유농업과, 말산업스포츠험활과, 반려동물과, 이차전지소재부품과를 운영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상호 협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사업과 협업체 △CC관련 혁신도시 연구소 및 기관, △권역 내 타 대학 ICC와 지자체 간의 산학협력 협회·공동 연구개발 상호협력체계 구축 △전북 새만금 국가 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이차전지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등 ONE-STOP 농생명 이차전지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 전경.

조희천 총장은 "혁신융합캠퍼스를 통해 지역특화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생명 바이오·이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 차세대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내 정주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 구축 사업비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32억원이 지원되며, 전주기전대학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부지 5692㎡에 혁신융합캠퍼스를 내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학년별

부설컵 스포츠대회 열어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6~12일 학년별 부설컵 스포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3~6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발아구, 피구, 디스캐처, 빅볼 배구, 축구, 장거리 달리기 등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장거리 달리기 종목에는 매일 아침 교장선생님과 함께 아침 달리기를 한 1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부설컵의 열기를 더했다.

김신철 교장은 마라톤 풀코스 sub-4 기록을 갖고 있는 마라톤러로서 2023 김제 지평선 마라톤 대회에서도 Half 부문 개인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이번 부설컵 대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장거리 달리기할 때 팔뚝이 땀에 젖었는데 교장선생님과 친구들이 제 이름을 크게 불러 준 덕분에 용기를 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며 "비록 팔뚝이 젖었지만 1등을 한 것 보다는 더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신철 교장은 "이번 부설컵 대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격려해주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2024학년도 군산부설초 부설컵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부설초등학교가 지난 6~12일 학년별 부설컵 스포츠대회를 연 가운데 학생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원 온라인 심리검사 추가 지원

도교육청, 상담지원제도 확대·운영... 사전 예방적 검사 통한 상담·치료까지 연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의 온라인 심리검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사전 예방적 검사를 통해 직장 생활과 개인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 증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과 연계 상담·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근무 환경 개선 및 중도 퇴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사항목은 생활 전반의 스트레스

정도과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 및 스트레스 인자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IESS 통합스트레스검사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힘인 회복탄력성 수준을 측정하는 RS 회복탄력성 검사 등 두 가지다.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검사를 받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심리검사 결과보고서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 및 스트레스 지수 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검사 결과를 확인 후 개인 신청에 따라 맞춤형 상담·치료지원과 연계해 교육공무직원의 정서안정과 심리회복을 돕고, 직장 내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게임업계 릴레이 공개 특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창의공과대학 디지털콘텐츠공학과가 한국 게임 산업의 선도 기업들과 '게임업계 공개 특강' 시리즈를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 게임콘텐츠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는 디지털콘텐츠공과는 시대변화에 맞춰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총 7차례의 게임업계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NC소프트, 펠어비스 4.33, NHN 등 국내 최정상 게임업체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망한 중견 게임 기업들이 참여한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첫 번째 특강은 '블레이드' 등 연속해서 히트작을 낸 네시삼십삼분(4:33)의 권혁우 이사가 나섰으며, 27일 두 번째 특강은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 최훈 본부장이 강연을 이끌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펠어비스의 이지은 정책협력실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권혁우 에니캐릭터팀장 권웨이브 송현우 대표, NC소프트 장영현 상무, NHN 김재환 이사가 수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한다. /역산은이재춘 기자

우석대,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공공·빅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해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본교 교양관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고, 전북 빅데이터 공동연구회가 주최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유관기관, 산업체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유철중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석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이 LINC 3.0 사업 우수사례 소개를, 남현숙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국내의 공공부부 AI활용 현황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본교 교양관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생성AI 및 메타버스 중심으로'를, 신효정 엘라스틱(Elastic) 이사가 '생성형 AI in the Enterprise' 도전과제, 기회 및 모범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제1회 전북 청년 빅데이터 경진대회 추진 현황 논의와

함께 빅데이터 기술 교류와 확산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정보 교류에 박차를 가해 전북의 빅데이터 연계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스마트기기 활용 윤리, e북에 담다

도교육청, '똑디와 함께하는 스마트기기 활용 예절의 모든 것' 제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스마트기기 활용 윤리를 담은 자료를 개발했다.

지난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환경의 올바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똑디(똑똑한 디지털 도우미)와 함께하는 스마트기기 활용 예절의 모든 것'을 e북과 동영상 자료로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자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수업 및 쉬는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기본 예절 △스마트기기 바른 이용 습관 및 과의존 예방 △스마트기기 사용중 건강 관리 방법 등 스마트기기 활용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정보통신윤리) 교육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자료 개발은 미래교육과 조민수 장

학사가 기획하고, 디지털특수실천교실연구회(회장 김수연)와 웹툰 제작에 참여한(전주타라초) 교사 등이 참여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기기의 윤리적 사용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면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통 능력, 자기주도성 및 디지털 문해력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2월 초까지 초등학교 6학년에 웨이북 1만6513대를,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에 노트북 4만7,880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수시 모의면접 컨설팅 지원

내달 2일까지 도내 고교 55곳서 특강 등 가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중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한 고3 수험생과 진학 교사들을 위해 컨설턴트 교사 2명과 특강 교사 1명이 학교를 방문해 모의면접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수시면접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시 대학별 본고사를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의 대학별 면접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컨설팅은 도내 고등학교 중 컨설팅을 희망한 55개교에서 이뤄지며, 1부 면접 특강과 2부 학생 대상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신청학교에서는 사전에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하고, 컨설턴트 교사는 이를 분석해 실제 면접 문항과 유사한 질문을 추출해서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전북 대입지원단 교사 중 학생부종합전형 상담 경험이 많은 43명의 교사를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면접 사례집 등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번 모의면접 컨설팅이 학생들의 면접 대응 능력과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회계세무학과 졸업생 취업 활성화

전주대, 전북세무사회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2일 전북지방 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본교 회계세무학과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전주대 경영대학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전북 세무사회 회장과 임원단 4명, 회계세무학과 교수 3명 그리고 30여 명의 회계세무학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계세무학과 학과장인 공경태 교수



는 "이번 협약이 회계세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전북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기장직원의 원활한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